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49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1월 9일 (음력 12월 4일) 수요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공장 점거…생산 중단 위기

청소미화 노동자 고용 3승계 놓고 노조 비정규직 vs 협력업체 간 공방 가열

광주공장 '타이어 재료' 소진…원청 금호타이어 개입 · 강제할 수 없는 상황

7일 오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크릴룸 공정에서 노조 비정규직지회가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가 공장을 무단점거 한 채 농성을 벌이면서 타이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8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 비정규직지회가 전날 오후 2시부터 청소 노동자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광주공장 크릴룸 공정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호타이어 측은 광주공장 점거농성이 지속될 경우 공정별로 차이는 있지만 타이어 생산재료 재고 물량 소진으로 오후부터는 생산이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광주·곡성공장 비정규직 청소미화 노동자의 고용 3승계(고용·노동조합·단체협약) 등을 놓고 비정규직 노조와 미화 협력업체 '에스텍세이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기존 광주·곡성공장 청소 용역회사 4곳이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계약 기한 만료에 맞춰 폐업 또는 사업을 포기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2월13일 새 청소 용역업체인 '에스텍세이프'와 미화직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기존 4개 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과정에서 '근로 계약서' 체결을 놓고 비정규직 노조와 에스텍세이프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비정규직 지회는 "새 청소 업체가 고용조건, 단체협약, 노조 지위, 경력(근속년수) 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인력 채용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스텍세이프가 광주·곡성공장 비정규직 미화조합원들에게 강요하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노예계약이자 사전 해고통지서"라고 거듭 주장했다.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 2005년과 지난해 8월 작성한 '3승계(고용·단체협약·노동조합) 합의서'와 '고용안정 특별합의서'에 따라 사내 하청 업체의 계약 해지 또는 변경 시 고용 조건과 단체 협약이 승계돼 왔지만 에스텍세이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스텍 세이프 관계자는 "기존 업체 직원들을 최선을 다해 채용하려고 노력했고, 회사는 정해진 절차와 원칙을 지킬 수 밖에 없다"며 "노조가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편파적인 주장을 펴고 있고, 입사 지원 여부는 개인의 선택인 만큼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사원들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청소 노동자 93명은 에스텍세이프가 제시한 근로계약 조건에 반발해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지회는 이들이 사실상 집단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스텍세이프가 비정규직 노조에 제시한 고용 승계안은 '미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 고용 유지', '법적 정년 이후 65세까지 촉탁 채용 가능', '연봉 3200~3600만원 수준', '설·추석, 근로자의 날 선물 지급' 등 6개 안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에서 요구하는 단체협약 승계는 에스텍세이프의 경영상황과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노조와 에스텍이 협의를 통해 경정할 사안"이라며 "원청인 금호타이어는 개입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생산 중단이 우려되는 불법적인 공장 점거농성을 즉각 풀고 대화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전남도, 한전공대 후보지 나주 3곳 후보지 추천

김영록 "혁신도시 활성화" 방점…혁신도시내 1곳 · 근거리 2곳

"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 교육 · 벤처창업 중심역할 시너지 최적"

이달 말 한전공과대학 입지 선정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간 유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남도는 나주 3곳을 후보지로 선정, 추천하기로 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자체의 한전공대 입지 추천 마감일인 이날 도는 나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3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전문 용역사 'A.T.Kearney'(A.T커니)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확정한 후보지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한전공대 후보지는 나주혁신도시내 1곳과 혁신도시와 가까운 2곳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후보지를 밝히지 않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새해 첫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나주혁신도시에 연접하거나 근거리에 있는 3곳을 한전공대 후보지로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광주전남혁신도시와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에너지융복합 신산업클러스터에 교육 벤처창업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전남에 연구중심대학이 없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한전공대가 혁신도시 인근에 들어선다면 목포대, 동신대, 순천대, 광주권 대학과도 긴밀한 협력체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첨단 3지구 등 3곳을 선정해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공대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 목표다. 학생수 1천명, 교수 100명, 부지 120만㎡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한전공대 설립부지는 오는 28일께 최종 선정된다. 이에 맞춰 대학 설립과 운영방안 등이 담긴 한전공대 밑그림인 최종 용역결과도 나온다.

김정환 기자

Photo 漫評

골머리

창당 1주년을 맞은 바른미래당이 당 소속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의 '탈당 행렬'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박주선 바른미래당전 대표가 '통합 실험은 끝났다'는 일각의 주장에 "과도한 표현"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출범 당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의원들을 겨냥하며 '지지율이 좀 낮은 상황"이라고 해서 탈당한다는 것은 '비겁한 행동'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전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정신을 관철해보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지지율이 좀 낮은 상황이라고 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득실만을 생각하고 탈당한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비난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은 평화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